

IEA, 2007년 태양광발전의 도입실적 발표

1. IET-PVPS의 개요

국제에너지기관(IEA)은 2008년 8월, IEA-Photovoltaics Power Systems Programme) 참가국에 대한 2007년의 태양광발전 도입량 실적을 발표하였다. IET-PVPS는 IET의 에너지연구개발위원회((CERT)의 재생가능에너지기술작업부회(REWP) 조직의 하나이다. IET-PVPS는, 국제협력활동을 강화하여 태양광발전 에너지가 중요한 지속가능한 재생가능 에너지원의 선택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개발과 보급을 가속해 나갈 것을 목표로 현재 IET 가맹국을 중심으로 21 개국가 및 2개 기관이 참가하고 있다.

2. 태양광발전 도입량의 실적

IET-PVPS에 의하면, IET-PVPS 참가국의 2007년의 태양광발전 도입량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2.26GW(2006년 : 5.58GW)이 되었다. 2007년의 도입량에서는 독일과 스페인만으로 전체의 70% 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여기에 일본과 미국을 더하면 이들 4 개국만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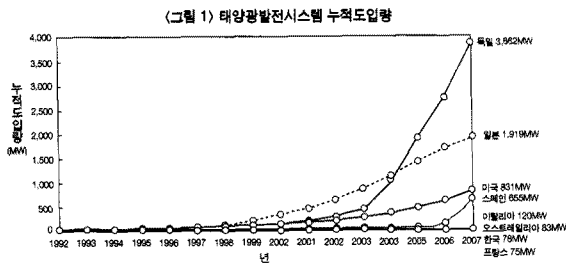
2007년의 독일의 연간도입량은 전년대비 36% 증가한 1,135MW(2006년: 830MW), 누계도입량은 전년

대비 42% 증가한 3,863MW(2006년: 2,727MW)가 되어 연간도입량 및 누계도입량 같이 세계 제1위이다.

2007년 스페인의 연간도입량은 전년의 5배 이상인 512MW(2006년: 98MW)가 되어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제2위가 되었다. 스페인의 급증한 요인은 2007년에 개정된 피드 인 테리프(FIT)에 의한 것으로, 스페인의 FIT는 설비의 규모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100KW 이하의 경우 당초 25년간은 46유로센트1kWh로 그 후에는 36유로센트 1kWh로의 매입이 보증되어 있다. 이것은 최근 급격한 성장을 이룩한 독일과 동일한 정도의 수준이다. 또한 현재 스페인에서는 FIT의 개정에 대하여 다시 심의되고 있으며, FIT의 수준이 현행보다도 대폭으로 저하될 것이 예상되고 있어 개정 전의 막바지 수요도 급증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2007년의 일본의 연간도입량은 전년 대비 27% 감소한 210MW(2006년: 287MW)가 되어 스페인에게 밀려 세계 제3위가 되었다. IET-PVPS 참가국 가운데 유일하게 전년 실적 대비 마이너스가 되었다. (그림1,2 참조)

IET-PVPS에 의하면, 앞으로의 전망에 관해서는 태양광발전시스템의 도입비용의 저감, 전기요금의 변동, 정부지원책의 유무 등에 의하여 다르겠으나 앞으로 계속해서 태양광발전 시프템의 시장이 성장해 나갈 것이 기대되고 있다.



(주) 1.IET-PVPS 참가국 및 참가기관: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델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유럽위원회(EC), 유럽태양광발전협회(EPIA), 말레이시아와 터키는 최근 참가. (이스라엘, 멕시코, 말레이시아는 IET 비가입국)

2. 피드인 태리프 (Feed-in Tariff : FIT) [고정가격 매입 제도]: 재생가능에너지의 도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국가에서 재생가능 에너지의 가격을 결정하여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발전 전력량에 응하여 1KWh당 고정된 가격이 지불되도록 하는 제도로써, 송·배전 운용자에게는 매입이 의무화되어 있음.

(출처: 일본전협회보)

